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130호)

2023.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4인

나. 제안일자 : 2023년 10월 18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19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입하며,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사망자를 포함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하마스의 테러로 사망자는 1300여명, 부상자는 3200여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은 남녀노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여성, 노인, 어린이 심지어 영아까지 살상하거나 민간인을 납치하여 인간방패로 삼는 등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 피해자에는 많은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서면서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용납할 수 없는 테러로서 규탄하고, 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반인륜적인 테러로 규정하며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인질을 인간방패로 삼는 만행을 멈추고, 인질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로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당사자는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의 관련 당사자는 즉각 분쟁을 멈추고,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며 인류애적 가치를 향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입한 이후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일이 발생했음.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만행이며, 테러로 규정해야 할 것임. 하마스의 테러에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으로 반격하며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희생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관련 당사자들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은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자행한 민간인 살상 및 납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의 관련 당사자들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022년 말 출범한 이스라엘 새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 가자지구 공습 등 對팔레스타인 강경정책을 펼치면서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무장그룹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대규모 무력 공격을 기습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강화하면서 양측에서 민간인 포함 약 9,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¹⁾ 이에 서안지구에서도 불안이 가중²⁾되고, 레바논 국경에서는 헤즈볼라와의 국지적 충돌이 매일 발생중³⁾이며, 이스라엘은 시리아 공항을 수차례 폭격⁴⁾한 바 있음.

이스라엘 정부는 금번 하마스 공격으로 최소 235명의 외국인이 사망

1) 10.31. 기준 양측 사망 약 9,711명 (이 1,405명, 팔 8,306명), 부상 26,480명 (이 5,432명, 팔 21,048명) / 팔 사망자 추이 (7,028명(+482)→7,326명(+298)→7,703명(+377)→8,005명(+302)→8,306명(+301))

2) (서안) 이스라엘, 사태 발발 이래 서안지구 내 대테러 작전 지속 수행중 테러 용의자 약 800명 체포 (하마스 연계 500명) / 이스라엘 정착민-팔 주민간 폭력 갈등 빈번 발생

3)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총 42개 국경 마을 주민 소개령 발령 (10.16., 10.22.)

4) (시리아)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알레포 공항 4차례 폭격 / 시리아 공항은 이란의 헤즈볼라 지원 주요 루트

하고, 74명이 실종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⁵⁾, 외교부에 따르면 10월 25일 현재 우리 국민이나 동포의 피해 상황은 없으며, 이스라엘 및 레바논 체류자를 대상으로 안전 지역으로의 대피 및 항공편을 통한 조속한 출국을 지속적으로 권고 중이라고 함.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지속되면서 현재는 팔레스타인측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하게 증가⁶⁾하고 있음. 특히, 10.27.(금) 이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고, 가자지구 공습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 하루에도 수백명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식량, 식수, 통신, 연료 공급이 차단⁷⁾되어,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및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우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아랍 국가들의 경우 이스라엘의 지속된 점령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 미보장이 사태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및 공습, 민간인 공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UAE,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등은 지상작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10.28.)하였음.

5) 2023. 10. 21. 발표

6) 2023.10.26.(수) 기준 팔레스타인측 사망자는 6,546명, 부상자는 17,439명임.

-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어린이 2,055명, 여성 1,119명을 포함함.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매일 지속되고 있어 팔레스타인 주민 사망자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4,100명→4,385명→4,651명→5,087명→5,791→6,546 (10.21.~10.26.))

7) 하루에 10~30여대의 인도적 물품 수송 트럭이 가자지구내로 진입중이나, 약2백만명의 인도적 수요 해결에는 부족한 규모이며, 특히 가자지구 내 연료 공급은 완전히 차단되어 병원, 구급차 등 가동 불가 상황임.

서방 국가들의 경우 하마스 테러를 규탄하면서도 최근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메시지⁸⁾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확대 이후 미국, EU 등 서방국가 및 일본은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중단(humanitarian pause)을 촉구하고 있음.

한편, 유엔에서는 이번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27.(금)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동 결의는 ① 인도적 휴전(humanitarian truce) 촉구, ② 신속하고 제한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 필요, ③ 민간인 보호 및 국제법 준수, ④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 대피명령 취소, ⑤ 테러 규탄 및 인질로 잡힌 모든 민간인 석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결의는 중동,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 및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 다수 서방국가를 포함하여 총 120개국이 찬성하였음⁹⁾.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최근 미국, 일본, 영국, EU, 호주,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중국, 카타르, UAE, 터키, 사우디 등 다수의 국가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결정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음.

8) 유엔 사무총장 :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10.24(화) 유엔안보리 공개토의시 “하마스의 공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팔레스타인은 지난 56년간의 점령을 겪어왔다”고 발언

9) 120개국 찬성, 14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동 결의에는 “하마스” 테러 규탄 언급이 부재한바, 우리는 기권)

이에 동 결의안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에 대하여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반인륜적인 테러로 규정하여 규탄함과 동시에, 관련 당사국에 분쟁의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교부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의 전개 및 국제사회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하고 균형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술한 유엔 결의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가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하게 발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266